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상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서 눈부신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대상의 정보화 예견력은 바로 2000년대의 한글정보화시대를 겨냥한 것이었다.

한글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이끌자

내용인 콘텐츠 구축도 전 세계를 선도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양질의 정보를 세계에서 최고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세계의 문자 중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디지털 기술로 조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한글이라는 우리의 문자 덕분이었다.

560년 전 세종이 창제한 한글이, 조선시대에는 한글 문화에 깃들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에 깃들면서 500년을 연면하다가 이제 겨우 60여년 한글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 우리 가까이까지 왔음을 감지한다. 광기와도 같은 영어 배우기 열풍, 그리고 또 전국 곳곳에 들어서서 영어마을이라는 정체불명의 테마파크를 보라.

는 디지털 노마디즘이라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소통하고, 양질의 정보력이 자본주의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는 '질 들러즈'의 예견이 현실이 되었다.

성이 있었다. 한글이 이전 한국 사람의 문자가 아니라 세계인의 문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계에 알려낼 차례이다.

일본의 독도분쟁, 중국의 동북공정, 미국의 자본주의적 동맹국의 재편, 북의 핵 실험 등 우리나라 주변에 국제 정세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할 동맹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13세기 우리나라를 130년간 침략했던 몽골이 우리나라와 새로운 문화 공동체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글을 첨병으로 한 상호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묶어내고 새로운 우방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들 지역에 연차적으로 100여 개의 한국문화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글을 첨병으로 한 상호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묶어내고 새로운 우방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시안의 내면적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써 우리말과 상대국가의 말이 소통되도록 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적절한 시기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토균형발전 국정 최우선 과제 맞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금·인력·예산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에서 드러난 수도권 편중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올해 국가연구·개발(R&D) 예산 4조8천억원의 73.8%가 수도권 및 대덕지구에 배정됐고 R&D와 기술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인력의 6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방자금의 역외 유출도 여전하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금융기관의 총수신액은 1천248조 원 중 대출된 338조원을 제외한 129조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의 '돈가뭄'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방지해준 지역균형발전을 헛구호일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할 때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북 6자회담 북귀 핵 폐기 전제돼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해 북미 관계와 북핵 사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북·미·중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0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6자회담의 재개로 북핵 문제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미국이 회담 재개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대북 제재카드를 계속 사용할 뜻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고, 북한도 핵 보유국임을 전제로 확실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자회담 북귀 전제 조건으로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은 불분명

하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가중되는 압박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회담 복귀에 응했다면 이는 계산적이다.

북한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핵 확산 노력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미국도 이제부터는 밀어붙이기식 압박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베이징 3자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케녕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통보를 받아서야 어떻게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었는가.

6자회담은 재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진전 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회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無等鼓

미 텍사스 주의 깃발에는 짙은 푸른색 줄무늬 바탕에 밝은 계가 외롭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텍사스 주는 론스타 스테이트(Lone Star State)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론스타는 1991년 설립된 사모펀드다.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의 투자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발휘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6천여건에 달할 정도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천억원이 넘는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부실은 지나치게 부풀려 환값에 인수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김철이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가조작을 공모했다며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펀드 부회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론스타의 차이 행기와 검찰수사는 별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도 외환은행 인수는 유요하다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론스타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 외국자본에 속절로 부러 5천억원이 넘는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론스타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기고

정관주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40여년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구하여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물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강과 호수는 오염되고 우리 인간이 마시는 식수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경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환경예산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은 단시일의 노력으로 쉽게 되지 않음을 수차례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부에서는 영산강물관리대책(2001~2005년)에 이어 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수

'영산강·섬진강 수계위' 출범과 그 이후

강특별법에 의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는 영산강과 섬진강의 주요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2005년까지 정해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개 등의 확충, 자연형 하천정비 추진, 주요 상수원인 주안호 등의 호소 수변에 수변구역 설정하여 수변녹지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오염원 유입을 사전 예방, 수역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도입 등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질개선을 위해 새로이 영산강대권역에 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년)을 수립하여 향후 10여년간 물관리정책의 주요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물관리정책의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OECD에서 제시한 수량·수질관리의 일원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차량에 커진 실내등 전화로 알려진 이웃에 흥 느껴

최근 출장을 갔다가 거래저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쉬고 있는데, 휴대 전화가 걸려왔다.

날 새벽 제 시카에 차를 몰고 출장을 갈 수 있었다. 만약 그 사람이 전화를 해주지 않아 이른 새벽 출장을 가다 차량 배터리 방전 사실을 알았다면 서비스 회사에 연락을 하고 거래저에 약속을 연기하는 등 분주했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고맙다.

▲오수영·광주시 북구 운임동

독자마당

'위험천만' 화물차 과적... 강력한 단속 시급



소머물로 사용되는 벗짚은 축사로 운반해 저장되는데 통상 한 개씩 운반하는 게 아니라 여러개를 화물차에 실어 나르게 된다.

적재량의 벗짚을 묶는 것도 엄지손가락 정도의 밧줄 하나가 전부다. 포장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상태로 국도 곳곳의 경사로나 커브길, 내리막길을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곡에 운행한다.

시내 버스를 탔는데 택시가 끼어들었다. 버스 기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욕설을 내뿜었다. "저 XX, 운전 더럽게 하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철제빔이나 코일 같은 강철 구조물을 잔뜩 싣고 운행하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가벼운 벗짚이지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채 앞서가는 화물차 뒤를 뒤따르는 운전자들은 '뽀뽀심'을 하는 등 여간 불안한게 아니다.

화물의 적재량, 적재높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재 상태에 대한 규정도 마련,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상당수 운전자와 시민들은 택시·버스 등 대중 교통 운전자들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강성구·광주시 동구 운임동